

## 유럽계몽주의사가들의 역사리론과 그 제한성

최 성 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적사실들과 사실들을 우리 인민의 리익의 견지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지난날의 력사적사실들에서 교훈을 찾고 경험을 살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 잘해나갈수 있다.》(《김정일전집》 제2권 165페이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지난날의 력사적사실들에서 교훈을 찾고 경험을 살려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 잘해나갈수 있다.

그러자면 사람들에게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주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력사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력사학을 발전시키는데서 사학사연구를 학술적으로 심화시키는것이 필요하다. 사학사연구를 학술적으로 심화시키는것은 해당 시대에 존재한 사가들의 인류력사에 대한 견해와 관점, 그에 기초한 역사리론, 력사서술방법을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분석평가하고 일반화하며 주체사관이 차지하는 특출한 지위와 거대한 생활력을 세계사학사적견지에서 밝힐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볼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학사적으로 볼 때 봉건적인 력사학을 타파하고 근대적인 력사학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계몽주의력사가들의 역사리론과 그 제한성에 대하여 보려고 한다.

서유럽나라들의 봉건제도는 18세기에 이르면서 더욱 위기에 처하게 되였으며 그것을 청산하는것이 일정에 오르게 되였다. 이 시기 여러 나라들에서는 봉건제도를 뒤집어엎는 부르조아혁명이 성숙되어갔으며 그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몽주의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계몽주의운동은 봉건사회를 청산하고 자본주의사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르조아지가 벌린 사상문화운동이였다.

17~18세기 유럽에서 부르조아지의 리해관계를 사상적으로 대변한 계몽주의사상이 하나의 시대적인 사조로 널리 퍼지고 그에 기초한 계몽주의운동이 벌어지면서 력사학분야에서도 계몽주의사상에 기초한 계몽주의력사학이 발생하고 발전하였다.

계몽주의사가들은 계몽주의사상과 부르조아지의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일련의 역사리론을 내놓았다.

계몽주의력사가들은 자연과학과 철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들의 발전과 그 영향밑에 사회발전에서 일정한 합법칙성을 발견하고 모든 사회력사적현상을 이 법칙에 의거하여 설명하려고 하였다.

계몽주의력사가들의 역사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력사의 진보에 관한 견해였다.

역사적과정을 역사가 쇠퇴하는가, 정제하는가 아니면 진보하는가 라고 보는 견해는 역사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초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다.

역사적과정에 관한 문제는 이미 고대사상가들속에서 제기되었다.

역사적과정에 관한 고대시기 사가들의 견해의 하나는 인류의 초기상태는 사람들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던 《황금시대》였다가 점차 아래로 하강하였다는것이였다. 인간이 처음에는 락원에서 살았다고 하는 종교적신화도 이러한 견해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다. 고대그리스의 헤시오도스는 인류 역사를 황금시대, 은시대, 청동기시대, 영웅시대, 철기시대 5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이상적인 시대인 황금시대로부터 고난의 시대로 하강하는것으로 보았다.

그후 인간의 이러한 절대적행복의 상태는 점차적으로 상실되어 온갖 불행이 닥쳐왔으며 역사는 쇠퇴와 종말에 가까와오고있다고 보았다. 이 극단한 비관주의적견해는 그리스도교의 성서와 루크레치우스의 철학에 잘 반영되어있다. 특히 강대하였던 로마제국이 《야만인》들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게 되자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세계가 종말로 가고있다는 신조를 가지게 되었다.

고대시기 사가들의 다른 하나의 견해는 역사가 도식적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보는것이였다.

고대중국의 이름난 철학자, 역사가였던 공자는 역사는 고리형모양의 도식을 띠고 왕조가 끊임없이 교체되면서 순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고대그리스-로마인들은 역사적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역사는 반복된다.》는것이였다.

그리스-로마사람들은 역사적과정은 그 어떤 새로운것의 발현이 아니라 이미 있던것의 반복이라고 보았다. 그들이 이렇게 사고하게 된것은 고대시기 아직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소박하고 유치한 견해를 가진것과도 관련되어있었다. 그들은 인간사회의 법칙을 연구하는데서 자연의 법칙을 모방하거나 혹은 비교하여 생각하면서 자연의 변화는 근본적인것에 있어서 반복의 법칙을 가지므로 역사적변화도 반복이라고 보았다. 때문에 고대그리스인들은 역사를 자연과 같이 성장, 개화, 몰락의 단계로 놓거나 생물학에서처럼 유년기, 성년기, 노년기의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그들은 자연이 이러한 단계를 반복하면서 존재하는것과 같이 역사도 반복된다고 보았다.

역사적과정을 쇠퇴나 단순한 순환, 반복으로 보는 견해는 중세시기에 와서도 봉건통치배들의 계급적요구와 종교교리밑에 계속 답습되어 봉건제도를 사상리론적으로 변호하는데 적극 리용되었다.

중세유럽에서는 인류역사발전은 《신》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신》의 제책과 섭리에 따라 발전한다는 노예주적신학적사관을 더욱 체계화한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신의 설》에 기초하여 역사를 인류가 죄를 계속 범하여 세계종말로 이르는 과정으로 보았다.

중세초기의 유럽교부학의 대표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의 저서 《신의 나라》에서 인류 역사를 영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노년기로 구분하고 노년기는 인류 역사의 종말기이며 이 《종말기》는 그리스도교의 출현에 의하여 구원된다고 하였다.

중세중국에서 고대시기에 제시된 공자의 순환론은 봉건적인 유교교리밑에서 봉건왕조의 교체와 반동적인 국왕통치와 신분제도를 합리화하는 리론으로 답습되고 더욱 세련되었다.

이처럼 중세시기의 역사기록과 편찬을 독점하였던 봉건지배계층들은 봉건제도를 종교교리로 합리화하면서 그것이 영원히 존속될 것이라고 믿었으며 그것을 대중에게 설교하였다.

이런 역사리론은 불합리한 봉건제도와 신분제도의 영원성을 주장함으로써 사학리론과 역사발전을 가로 막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견해였다.

계몽주의학자들은 이러한 비과학적인 역사리론에 대하여 역사는 봉건승려들이 주장하는것처럼 고정불변하거나 단순한 반복과 순환이 아니라 전진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역사적과정을 쇠퇴와 종말로 보거나 반복하거나 순환한다는 견해와 상반되는 진보에 관한 리론이 처음으로 확립되기 시작한것은 17세기말부터였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행복을 실현할수 있다는 견해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과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를 비롯한 근대철학자들의 사상에 관통되어있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시대의 낡은것은 새것에 의하여 교체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 리론은 파스칼과 데카르트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었다.

자연과학적견지에서 인간과 사회력사의 진보를 뚜렷이 주장한것은 파스칼이었다. 그는 자기의 글에서 《자연의 비밀은 숨겨져있다. 인류는 한사람, 한사람이 여러 학문에 있어서 진보할뿐아니라 인류전체로서도 부단한 진보를 계속한다.》고 하였다. 자연과학상의 문제에서 제기된 17세기의 진보의 관념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과 기술분야에서의 진보를 넘어 도덕적, 사회적진보의 확신으로 넓혀지게 되었다. 데카르트는 역사적지반우에서 성장하는 법과 제도는 각종 전쟁과 범죄에 기인되는것으로 한결음, 한결음 발달하여 개량되어 나간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역사의 진보에 대한 견해를 더욱 발전시킨것은 프랑스의 이름난 계몽주의자인 볼테르였다.

볼테르는 여러 저서들에서 현대인들은 고대인들보다 훨씬 높은 분야들에 있다고 하면서 절대다수사람들이 《황금시대》를 지나간 시대로만 보는 견해, 자연상태의 행복에 대한 견해는 아이들에게나 들려주는 옛말이라고 비웃었다.

이러한 진보에 관한 견해를 역사적서술로 피력한것은 프랑스의 계몽주의사가인 몽도르세였다.

18세기에 프랑스의 백과전서과의 한사람이였고 프랑스부르쥬아혁명시기 《인권 및 공민권선언》서론의 작성자였으며 유명한 계몽주의사가들중의 한사람이였던 몽도르세는 저서 《인간정신의 진보에 대한 역사적개관》에서 인류의 걸어온 발자취를 놓고볼 때 인간의 능력완성에 대하여 어떠한 한계도 보이지 않으며 인간의 완성은 바로 무한하다고 하면서 인류의 진보는 직선적이였고 지그자그는 없으며 앞으로의 진보는 어느 한 특정의 분야가 아니라 모든 령역에서 실현된다고 하였다.

그는 인류력사의 진보를 10단계로 나누었다. 그에 의하면 제1단계는 원시시대(공동생활개시전으로서 수렵과 어업진행), 제2단계는 목축시대(농업발생전으로서 사유재산과 불평등발생), 제3단계는 농업시대(문자발명전), 제4단계는 그리스시대, 제5단계는 로마시대, 제6단계는 십자군시대, 제7단계는 인쇄술발명(1440년), 제8단계는 데카르트에 의한

과학, 철학의 해방, 제9단계는 프랑스공화국선언(1792년), 10단계는 프랑스공화국성립이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현재 인류는 제9단계에 있으며 제10단계에서는 완전한 사회가 실현될 것이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10단계에서 시민사이의 평등의 권리가 확립될 것이며 인간의 지적, 도덕적능력이 현저하게 진보한다고 하였다.

유럽에서 계몽주의시대에 형성된 《력사는 진보한다.》는 견해는 봉건제도의 영원성을 주장하는 종교적리론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봉건제도를 부르조아사상가들이 주장하는 보다 발전된 《리성의 왕국》인 자본주의제도로 교체할수 있다는것을 주장함으로써 근대사학발전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진보》에 대한 계몽주의자들의 견해는 진보의 원천을 인간의 리성으로 보는 관념론적인것이였다.

계몽주의사가들의 역사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력사발전과정에 관한 리론이다.

계몽주의력사학의 최초의 대표자이며 언어학자인 이딸리아의 위코는 1725년에 내놓은 저서 《새 과학》에서 순환론을 내놓았다.

1697년부터 나폴리종합대학에서 수사학교수로 활동하였던 위코는 1725년에 내놓은 유명한 저술인 《새 과학》에서 17세기의 력사가들의 력사연구를 주로 사료수집과 고증의 방법에 치우치고 력사적사건이나 현상의 본질을 해명하는데는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으며 사회력사적현상들은 서로 고립된 상태에서가 아니라 종합적이며 통일적상태에서 호상련관의 상태에서 리해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러한 견해로부터 출발하면서 위코는 모든 사회는 자기의 발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단계 즉 원시적야만단계 또는 미개단계, 《영웅적세기》 또는 봉건단계, 《인간적세기》 즉 《도시, 법, 리성》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인류사회발전의 세번째 단계(마지막단계)에서 민주주의제도는 왕정으로 교체되며 이렇게 하여 사회의 쇠퇴몰락이 도래하게 되는데 이것으로서 인류사회는 영영 멸망하는것이 아니라 다시 사회는 미개와 신권정치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여 력사는 계속 반복되며 순환된다는것이다.

력사가 계속 반복되며 순환된다는 리론은 이미전에 그에 앞서 고대그리스와 로마사학자들이 내놓은것이였다. 또 인문주의사가인 마키아벨리도 이러한 리론을 내놓았다.

장 바티스타 위코의 순환론에서 새로운것은 순환이 단순한 반복이거나 비극적이며 반동적인것이 아니라 상승적인 순환이라는것이다. 그에 의하면 사회는 순환될 때마다 재생산되며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는것 즉 사회력사의 운동은 직선적이 아니라 나선형적으로 발전한다는것이다.

위코의 리론은 순환과정을 절대적인 정지로그가 아니라 발전과정으로 본 점에서 력사리론발전에서 고대나 중세시기의 순환론에 비하여 매우 전진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에 대하여 맑스는 위코의 《새 과학》을 보고 《...적지 않은 천재적섬광》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코의 리론은 인류사회의 발전은 《신의》 또는 《신의 계획》의 구현화과정이며 또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이러저러하게 선택할수 있으나 결국에 가서는 신의 작용이 가해진 운명에 적용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는 신학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계몽주의사가들의 력사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볼때르의 문화사론이다.

볼때르는 1751년에 출판된 《루이 14세의 년대사》, 1756년에 출판된 《인민의 풍속과 정신에 관한 시론》(풍속론) 등 력사저술에서 계몽주의력사리론인 문화사론을 내놓았다.

문화사라는것은 당시 봉건지배계급들의 통치와 그 년대, 그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 사실들을 단순히 기록하였던 정치사와 대비되는 말로서 일반대중의 생활과 세태풍속, 사람들이 살고있는 자연지리적환경, 인구 등을 연구서술하는 력사를 의미하였다.

볼때르는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문화의 측면들인 정신, 풍습, 의지, 기후 등의 자연지리적 및 문화적환경들을 력사발전의 기본요인으로 보고 서술하였다.

볼때르는 당시에 왕권신수설을 주장하는 봉건사가였던 보취에의 신학적인 서술을 반대하여 문화사론을 내놓았다.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법적계승자였던 만아들의 가정교사로 일하였던 보취에는 《력사는 왕과 귀족들의 상담역이다.》라고 하면서 왕자의 교육을 위하여 책 《세계사강의》를 썼는데 여기서 력사를 반동적인 《왕권신수설》로 일관시켰다.

볼때르는 력사의 발전은 신적인것이 아니라 모든것이 인간적이므로 력사를 개별적인 인간들의 심사숙고, 의지, 예지, 우둔 등 개성적심리를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하면서 종교적이며 봉건적인 력사리론을 비판하였다.

그는 《나는 결코 왕조의 력사를 쓰지 않는다.》라고 자기의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력사에 대한 이러한 립장과 견해를 가지고 외교상의 비밀, 전쟁의 발발과 그 과정을 경시하였으며 왕조사, 군사사, 외교사 등과 같은 정치사를 반대하고 인간적인 문화사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정사로 된다고 하였다. 그는 봉건지배계급이 독차지하고있던 정치와 국가적립장에서 떨어져서 시민의 립장에서 풍속, 습관, 법률, 재정, 농업, 인구의 이동 등을 묘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볼때르가 말한 시민의 립장이란 본질에 있어서 부르조아지의 립장을 말한다.

볼때르는 이렇게 통치배들위주로 서술되던 봉건적력사리론을 반대하고 근대적력사리론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볼때르가 내놓은 문화사론은 인차 프랑스로부터 도이칠란드에로 퍼져 사학사에 문화사가들이라고로 표현된 하나의 력사연구학과를 낳았다.

볼때르는 봉건지배층의 행위와 사건만을 중요시하던 년대학적방법과 봉건제도를 합리화하는 신학적력사서술방법에서 일반대중의 생활과 세태풍속, 당시의 자연지리적환경 등의 연구와 묘사에로 력사연구의 대상과 방법에 주의를 돌리게 하고 그 영역을 확대시켜 력사리론발전에 기여하였다.

볼때르의 력사리론은 계몽주의력사학에서 하나의 커다란 진보로 되었다. 그는 단순히 사건, 사실, 인물들에 대하여 기록, 편집만하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력사의 연구분야를 사건의 기록으로부터 문명의 개관으로 확대시켰으며 비판적인 연구와 사회학적인 방법을 력사연구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볼때르의 문화사론은 력사의 발전을 개별적인 인간들의 심사숙고, 의지, 예지, 우둔 등 개성적심리의 작용으로 본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또한 력사저술에서 사람들의 풍속과 래왕 등을 강조하던 나머지 큰 국가적인 사건이나 전쟁 등을 경시한 제한성도 있다.

계몽주의사가들의 력사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력사발전과정에서 과도기에 관한 리론이다.

튀링겐대학에서 교수로 일하였던 도이칠란드의 역사가 슐뢰쩌르는 역사발전과정에서 과도기의 존재문제를 제기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년대기록의 경우에는 개별적사람들의 사망, 출생의 년대나 시일을 가지고 매 시기의 시초와 종말기를 규정할수도 있으나 사회력사서술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수 없다는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역사적시대의 발생은 낡은 역사적시대로부터 새로운 역사적시대로의 일정한 이행기가 필요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즉 고대와 중세, 중세와 근대사이에는 한 제도가 다른 제도로 넘어가는 시기가 존재하는데 그리스도교의 발전, 미개인들의 로마제국에로의 침입과 정복은 하나의 역사적과정으로서 고대의 종말과 중세기에로의 이행을 표식하는 사건으로 될수 있으며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과학과 예술의 부흥, 종교개혁, 로마신권정치의 쇠퇴, 지리적발견 등은 중세기로부터 근세에로의 이행기(과도기)의 중요한 역사적내용을 이룬다는것이다. 그런데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이행기는 혁명적성격을 띠며 심각한 사회적동요를 동반한다는것이다.

이러한 슐뢰쩌르의 견해는 당시의 사회력사적조건에서는 진보적견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슐뢰쩌르의 견해는 과도기를 규정하는 사회력사적내용을 외부적요인과 조건에서만 본것과 한 제도로부터 다른 제도에로의 이행과 혁명적전환의 시대가 명백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이처럼 계몽주의역사리론은 여러가지 역사리론을 내놓음으로써 18세기 역사학의 발전을 떠밀었다.

그러나 계몽주의역사리론은 부르쥬아지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것으로서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계몽주의사가들의 역사리론의 제한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관념론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주관주의적사회력사관에 기초하고있다는데 있다.

계몽주의사가들의 역사리론은 감성과 리성의 변증법적통일을 무시하고 인간의 리성을 절대화한 합리주의를 세계관적기초로, 출발점으로 하고있다.

계몽주의사가들은 합리주의에 기초한 계몽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리성을 사회력사발전의 기본동인으로 보는 견해에 머물러있었다.

따라서 계몽주의사가들의 역사리론은 계몽주의사상이 가지게 되는 제한성을 그대로 띠게 되었다.

우선 진보에 대한 계몽주의사가들의 리론은 진보의 원천을 인간의 리성으로 보는 관념론적인것이였다.

실제로 볼때르는 진보의 원천은 현실을 파악하고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완성될수 있는 인간의 리성이라고 하였다. 볼때르와 계몽주의자들은 리성과 지성이 널리 보급되면 인류는 크게 진보한다고 생각하였다. 콩도르세는 《인간정신의 진보에 대한 역사적개관》에서 인류력사의 발전을 인간정신의 진보로 보면서 그 과정은 리성의 발현과정이라고 보았다.

진보의 과학적기준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있으며 진보에 대한 문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실현과 결부되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계몽주의자들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계몽주의사가들의 리론은 치명적

인 이론적, 계급적제한성을 나타내고있다.

또한 계몽주의사가들의 역사리론에서 아직도 중세기적이며 신학적인 잔재를 많이 가지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실례로 이탈리아의 계몽주의사가인 위코는 자기의 리론을 전개하면서 역사발전을 신의 구현화과정으로, 인간의 운명을 숙명적인것으로 본 비과학적인 신학적인 잔재를 많이 가진 제한성을 드러내놓았다.

계몽주의사가들의 역사리론의 제한성은 다음으로 부르쥬아지의 계급적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데 있다.

우선 계몽주의역사사가들은 부르쥬아계급의 리익의 대변자로서 부르쥬아지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리론을 전개하였다.

계몽주의사가들이 주장한 진보는 부르쥬아적《자유》와 《평등》의 실현과 부르쥬아적소유의 확립이었다. 따라서 계몽주의사가들이 주장한 《진보》는 부르쥬아사회의 원칙들의 승리로 되었으며 진보의 최종목적이 《리성의 왕국》, 부르쥬아사회로 그릇되게 보고있다.

대표적인 계몽주의사가인 콩도르세는 프랑스부르쥬아혁명에서 대부르쥬아지의 리해관계를 대변한 지롱드파의 핵심인물이었다. 그는 《인간정신의 진보에 대한 역사적개관》에서 부르쥬아지의 계급적리해관계를 반영하여 인류가 도달하게 되는 마지막단계인 10단계의 사회를 부르쥬아사회로 보면서 부르쥬아사회를 리상화하였다. 그는 인간의 리성이 실현되는 사회는 봉건사회를 교체한 부르쥬아사회라고 주장하였다.

계몽주의사가들이 주장한 리성이 지배하는 왕국은 다름아닌 부르쥬아지들의 왕국이었다.

또한 계몽주의사가들은 부르쥬아지의 계급적립장에서 출발하여 역사를 전진시키는 인민들의 투쟁을 외곡하거나 비난하였다.

실례로 프랑스의 계몽주의사가인 콩도르세는 중세시기 프랑스농민들의 대표적인 반봉건투쟁의 하나였던 자끄리농민폭동을 《자끄리들의 맹목적폭력》이라고 묘사하고 비난하였으며 도시부르쥬아지들의 반봉건투쟁에 대하여서는 장황하게 강조하여 서술하였다.

이처럼 계몽주의사가들의 역사리론은 부르쥬아지의 계급적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실마리어 계몽주의, 볼페르